

### 광주은행 본점서 민방위 훈련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행장 김장학) 본점에서 지난 20일 광주은행 본점 및 입주 업체 직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94차 민방위 훈련이 펼쳐졌다. <광주은행 제공>

### K-water 주암댐관리단, 배드민턴 대회



K-water 주암댐관리단(단장 이현노)이 주최하는 '제4회 K-water 주암댐관리단장배 배드민턴 클럽대항전'이 최근 지역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K-water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광주대, 하계어학연수 장학생 격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최근 대학 행정관 6층 회의실에서 제14기 하계어학연수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광주대 제공>

### 광주기독병원, 전산장애 대비 모의훈련



광주기독병원(병원장 박병란)은 최근 전산장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산장애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기독병원 제공>

## 2만1000시간의 봉사... '꽃할배 삼총사'의 행복

박성근·한평석·장재봉씨, 빛고을건강타운 식당서 5년째 구슬땀



'꽃할배'가 새겨진 모자를 쓴 '삼총사' 한평석·박성근·장재봉(왼쪽부터)씨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식당에서 환히 웃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하루 평균 1800여명 노인이 점심식사를 하는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삼총사'로 불리는 박성근(75·남구 봉선동)씨, 한평석(70·동구 학동)씨, 장재봉(69·동구 학운동)씨의 미담이 화제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음식, 소독, 배식 준비로 부산한 식당에서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가며 무거운 밥솥과 철제 식판, 반찬을 나르는 등 고된 일을 5년째 도맡고 있다.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삼총사들은 건강타운 이용객들의 식사가 끝날 즈음 다른 자원봉사자나 조리원 등이 먼저 식사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자신들은 가장 마지막에 식사를 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2009년 개원 이후 5년간 한결같은 노고와 희생으로 활동해온 이들을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원장 이희은)은 최근 새 작업복과 모자에 이름 대신 '꽃할배'라 새겨주어 '꽃할배 삼총사'란 새 별명을 얻기도 했다. 강력계 형사 출신 박성근 씨, 식당을 운영했던 한평석 씨, 성당 사무장으로 일했던 장재봉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짐없이 일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만 개인당 봉사활동 누적시간 7000시간을 달성했다. 박씨는 "손자가 입대 직전 전화를 걸어,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건네줘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자본·권력의 잘못에 눈 감으면 비극은 계속”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조선·일본인 생매장 '나나쓰다테' 사건 70주기 추도식 참석

### “위안부·세월호 피해자 고통 진행형인데... 사회 무관심 안타까워”

일제강점기, 일본광산으로 끌려가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묻힌 땅에서도, 자신을 낳아준 조국에서도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채, 조선인과 일본인 수십 명이 생매장된 '나나쓰다테' 사건은 70년이 지났다. 1944년 5월 29일 일본 동북지방 아키타현 소재 하나오카 광산에서 조선인 12명과 일본인 11명이 땅 속에 매몰됐다. 경도위를 흐르던 하나오카 강의 밀바닥이 무너지면서 '나나쓰다테' 광도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들이 갇힌 것이다. 갑작스레 굴속에 갇힌 노동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삽으로 레일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구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2차대전 말기 한창 전쟁에 몰두해 있던 일본군 관료들은 구조작업으로 전쟁물자 공급이 늦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한, 붕괴된 광산에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해 전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관료들은 결국 '구조'대신 '매몰'을 택했다. 당시 군수물자를 공급하던 군수대신 도조 히데키는 무너진 광도를 흙으로 덮어버리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땅 속에 갇힌 이들의 동료와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구조에 나서 조선

인 한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 나머지 22명은 전원 사망했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에서 발생한 '나나쓰다테' 사건은 이익에 눈이 먼 자본가들과 그들의 부정을 쉬쉬하며 덮어버리기 급급했던 권력으로 인해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희생된 조선인과 일본인 22명의 유가족이 최근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이를 소재로 만들어진 마쓰다 도키코의 소설 '땅 밑의 사람들'(범우)을 번역한 전남과학대학 김정훈(53) 교수는 유가족들과 함께 나나쓰다테 사건 70주기 추도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지난 2007년부터 나나쓰다테 사건을 연구해 온 그는 비극적인 사건을 잊어버린 사실이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물론 나나쓰다테 사건 피해자와 일본군 로정신대 피해자까지 그들의 아픔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무서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시민들이 무관심했기에 권력은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며 비극적인 사건을 쉬쉬하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픔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회분위기가 세월호라는 비극을 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자본과 권력의 잘못에 눈감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에 좀 더 공감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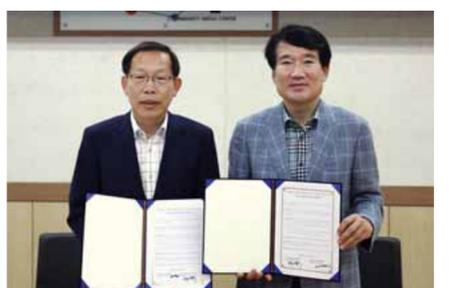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평화후호 심포지움에서 나나쓰다테 사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김정훈 교수.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전남기협 미래 언론인 양성교육 활성화 MOU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왼쪽)는 지난 20일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구길용)와 지역민의 언론 참여 확대 및 미래 언론인 양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민이 미디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상호

협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민의 미디어접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들의 미디어리터러시 능력 함양 및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시 재능 기부 인적 물적 인프라 교류 및 홍보 지원 등이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청소년과 청년계층의 미디어분야 진로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자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재능 기부하는 멘토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상호협력 시행을 위해 미디어교육컨설팅과 각종 미디어장비 및 시설 등의 물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하축

▲김윤중(광주 서구청 앞 법무사)씨 장남 장한근 나정식씨 장녀 혜령양=29일(일) 오전 11시 50분 라페스타웨딩홀 2층 엘투체울 010-8600-3654.

### 동창회

▲광주북구 양산초등학교 제6회 총동문 한마음 체육대회=29일(일) 오전 10시 광주 양산초 운동장 010-8605-1142.

### 알림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

233-046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할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과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임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상담=지역 주민 누구나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마음상담센터 062-526-3370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

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모집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유아교사를 위한 반주법, 정서를 위한 악기 사용법·뮤지컬 댄스·바른몸 운동지도사 양성과정. 노동부 지원·국비지원(직장인·일반인·장업예정인, 자격증만 수시접수) 062-269-6669, 010-3606-0230.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바이올린 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

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디자인 슝 제작 판매과정=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숍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광주전남불교신도회=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작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안전모니터봉사단=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

광역시지회 062-514-2929. ▲남구 방림1동 새마을협의회=자원봉사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동그라미 언어학습센터=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그룹치료 및 검사 평가 월~금(오전 9시~오후 7시), 토(오전 9시~오후 2시) 남구 대남대

로 113(2층) 062-433-5559. ▲푸른길동통문화마을=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촌 062-523-0474. ▲설천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b>101호 故어영규 님(남/72세)</b> 女/婿 : 이명희/차경석 * 발 인 : 6월 24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b>102호 故어준영 님(남/69세)</b> 子/子婦 : 여상진/이현희, 여영민/경희연 女 : 여성희 末子 : 정선영 * 발 인 : 6월 24일 * 장 지 : 나주 다도 선영 * 연락처 : 227-4386
<b>401호 故배상진 님(남/90세)</b> 子/子婦 : 배재관/김영숙, 배재국 婿 : 주영현 * 발 인 : 6월 23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3	<b>402호 故임복수 님(남/77세)</b> 子/子婦 : 임경환/선호순, 임동훈/염은심, 임정훈/김미진 * 발 인 : 6월 24일 * 장 지 : 보성문덕선영 * 연락처 : 227-4314
<b>201호 故남 순 님(여/70세)</b> 夫/妻 : 노정오 女/婿 : 노민경, 노진희, 노현아, 노현주, 노수환, 노원우 * 발 인 : 6월 24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孝 金호장례식장 弔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